

배포일시	2011.07.13.(수) 11:00 (총5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전지방기상청 인천기상대	담당자	대장 박남철
		전화번호	032-761-9969

< 1개월 전망 (7월 하순 ~ 8월 중순) >
 — 7월 하순에는 많은 비가 오겠고, 8월 상순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음 —

(7월 하순)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겠음.
 (8월 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겠으며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가 있겠음.

【 1개월(7월 하순 ~ 8월 중순) 전망 요약 】

전 국	평 균 기 온	강 수 량
7월 하순	평년(24~27℃)과 비슷하겠음	평년(51~135mm)보다 많겠음
8월 상순	평년(25~28℃)보다 높겠음	평년(47~139mm)과 비슷하겠음
8월 중순	평년(24~27℃)과 비슷하겠음	평년(61~129mm)과 비슷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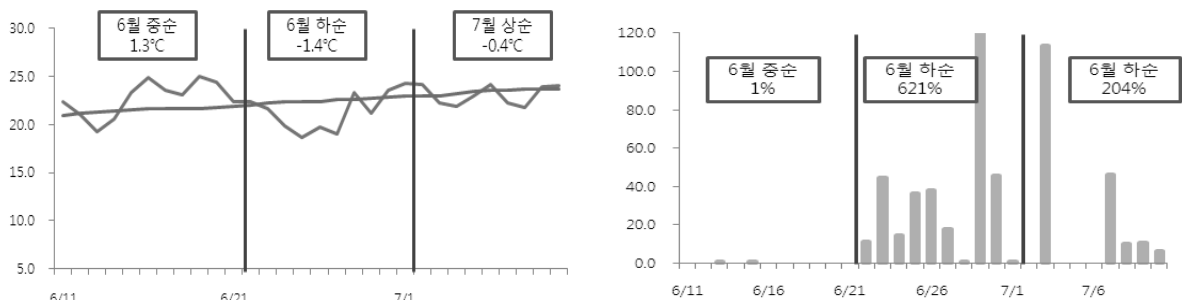
서울·인천·경기	평 균 기 온	강 수 량
7월 하순	평년(25~26℃)과 비슷하겠음	평년(108~135mm)보다 많겠음
8월 상순	평년(25~27℃)보다 높겠음	평년(88~139mm)과 비슷하겠음
8월 중순	평년(25~26℃)과 비슷하겠음	평년(84~98mm)과 비슷하겠음

1. 날씨 전망

-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온도 상태) 평년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해수면 온도 편차 : 7월 첫째 주(6.26~7.2) 0.0℃
- (7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과 대기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로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
- (8월 상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무더운 날이 많겠고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8월 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지역에 따라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 최근 날씨 동향

- (6월 중순) 동서고압대의 영향으로 맑고 더운 날씨가 많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11일, 15~16일, 19일에 장맛비가 내렸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음.
- (6월 하순)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22~26일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26~27일에는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으로 북상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28~30일 다시 장마전선에 의해 중부지방과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렸음. 장마전선에 의한 강수구역이 좁게 형성되어 오르내리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며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음.
- (7월 상순)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3~4일과 6~10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았음. 전반에는 일시적으로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이 많았으나, 후반에는 상층 기압골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기온이 떨어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음.



최근 1개월 서울·인천·경기 평균기온(좌)과 강수량(우)의 일변화(2011.06.11 ~ 07.10)

- ※ 첨부 1 :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월 하순~8월 중순)
- ※ 첨부 2 :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사례(7월 하순~8월 중순)

【 알 림 】

- 1개월 전망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자료→소속기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1개월 전망은 2011년 7월 22일 오전 11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기후통계자료에 대한 문의는 기상청 기상자원과(02-2181-0887)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최근 10년간의 기후 특성(7월 하순~8월 중순)

○ 평균 기압계

- 북태평양고기압이 점차 확장함에 따라 장마전선은 만주지방으로 북상하여 약화되거나 소멸되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됨. 8월 중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서히 약화되고 그 가장자리를 따라 기압골과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가며 많은 비가 내림.
- 장마전선이 만주지방으로 북상하거나 소멸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남.
- 대기불안정에 의해 지역적인 뇌우소나기들이 발생하며, 강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함.
-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덜 확장하여 발달하는 경우에는 태풍이 북상하여 영향을 주기도 함.

○ 바람

- 전반적으로 남서풍이 우세함.

○ 태풍

- 0.8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7월 하순:0.1개, 8월 상순:0.4개, 8월 중순:0.3개)을 미침.

○ 폭염과 열대야

- 폭염과 열대야는 각각 평균 7.0일, 4.6일 나타나며 8월 상순에 가장 많이 나타남.

※ 폭염/열대야 : 7월 하순 2.3일/1.4일, 8월 상순 3.0일/1.8일, 8월 중순 1.8일/1.4일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 평균기온 : 25.8℃ (7월 하순 25.7℃, 8월 상순 26.4℃, 8월 중순 25.3℃)
- 평균 강수량 : 266.3mm (7월 하순 74.0mm, 8월 상순 84.3mm, 8월 중순 108.0mm)

[첨부 2] 최근 10년간의 특이 기상 사례 (7월 하순 ~ 8월 중순)

○ 고온현상

- (2010년 7월 하순~8월 상순) 평년보다 더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6.9일, 10년 평균대비 3.2일)가 지속되었음. 특히 최저기온이 높아 기간 중 계속해서 최저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음. 전기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관련 상품의 매출이 대폭 신장(전년 동기 대비 에어컨 120%, 선풍기 75% 매출 증가)되고, 해수욕장이 장기간 호황을 이루는 등의 경제적 효과도 컸음.
- (2006년 8월 상순~중순) 북태평양고기압이 북한까지 확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온현상이 나타났으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발생하였음.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32.6℃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았으며, 내륙에서는 36~38℃까지 기온이 상승하였음. 더위로 농산물의 출하량이 줄어들어 채소값이 올랐으며, 가축의 폐사가 속출하였음. 고온현상은 8월 하순까지 이어졌음.
- (2004년 7월 하순~8월 상순) 전국적으로 폭염이 자주 발생(11.6일, 10년 평균대비 +6.3일)하였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7월 24일 강릉 최저기온 28.8℃ 기록)가 자주 발생하여, 평균 최고기온 33.0℃(최근 10년 평균대비 +2.4℃)를 기록하였음. 특히 7월 30일~31일의 기온이 가장 높았음. 7월 30일에는 밀양에서 38.5℃를 기록하며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4.4℃(평년편차 +3.4℃)로 7월의 전국 평균 최고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음.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닭 수천마리가 폐사하였으나, 에어컨과 냉장고의 판매량이 각각 20%, 10% 증가하였으며, 빙과·맥주도 매출이 증가하였음.

○ 집중 호우

- (2004년 8월 중순) 평균 강수량은 217.3mm(평년대비 262%)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음(10년 평균 108.0mm의 2배). 8월 18일에 제 15호 태풍 ‘메기’가 북상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완도 353.5mm, 장흥 328.0mm, 산청 307.5mm, 해남 303.0mm, 거창 253.0mm, 진도 235.0mm, 남원 218.0mm, 의성 215.5mm, 목포 206.5mm, 구미 202.0mm를 기록하며, 각 지점에서 8월 중 일강수량으로는 최고 극값을 기록)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음. 이번 비로 전국에서 8명이 사망·실종 되었고, 2674명의 이재민이 발생, 농경지 8158ha가 물에 잠기고, 주택 1486채가 침수되었음.
- (2002년 8월 상순) 평균 강수량은 293.2mm(평년대비 363%)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으며, 특히 8월 6일~7일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일강수량 극값을 기록(6일은 봉화 241.5mm, 임실 208.5mm, 7일은 양평 320mm, 완도 294.0mm, 이천 279.0mm, 제천 275.5mm, 천안 240.5mm, 충주 227.0mm, 영월 226.0mm, 봉화 211.5mm, 수원 203.0mm)한 지역이 많았음. 1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17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저온현상

- (2002년 8월 상순~중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았으며(강수일수 12.3일, 10년 평균대비 +2.8일), 잦은 집중호우와 함께 저온현상이 나타났음. 집중호우에 이어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여름감기환자가 부쩍 늘어, 예년에 비해 감기환자가 10~20%가량 늘어났음.
- (2003년 7월 하순~8월 중순) 강하게 발달한 오호츠크해 고기압과 평년보다 덜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잦아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음. 6월부터 시작된 저온현상은 8월까지 이어졌음.